

2022 개정  
교육과정

핵심 정리부터 실전 문제까지,  
최고의 내신 대비

# 평가문제집

중학교  
국어 1-2

핵심 정리로 교과서 완벽 이해  
다양한 실전 문제로 내신 성적 점프  
서술·논술형 강화로 수행평가 대비

서혁 교과서편



하이  
리이트  
지학사

# 시험성적 올리는 이 책의 구성

## 비법 1 선생님의 출제 의도를 파악하기 위한 시험 출제 포인트 & 소단원 핵심 확인하기

### 1 성장을 담은 문학

**1. 단원 학습 목표**

- 1. 단원 학습 목표
  - 1. 단원 학습 목표
  - 2. 단원 학습 목표
  - 3. 단원 학습 목표
- 2. 단원 학습 목표
- 3. 단원 학습 목표

### 명기 스페너

소단원	핵심
1. 단원 학습 목표	1. 단원 학습 목표
2. 단원 학습 목표	2. 단원 학습 목표
3. 단원 학습 목표	3. 단원 학습 목표

### [소단원 핵심 미리 보기]

- ▶ **시험 출제 포인트** 소단원에서 배울 핵심 포인트를 정리하였습니다.
- ▶ **소단원 핵심 정리** 소단원의 핵심 개념과 핵심 내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 ▶ **핵심 확인 문제** 소단원 핵심 내용을 문제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비법 2 소단원 제재와 학습 활동을 꼼꼼하게 살펴보는 교과서 완벽하게 이해하기

### 명기 스페너

1. 단원 학습 목표

2. 단원 학습 목표

3. 단원 학습 목표

### 교과서 활동 점검하기

1. 단원 학습 목표

2. 단원 학습 목표

3. 단원 학습 목표

### [소단원 핵심 확인하기]

- ▶ **핵심 훑기** 소단원 제재의 핵심 내용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습니다.
- ▶ **핵심 체크** OX 문제로 핵심 내용을 효과적으로 기억할 수 있습니다.
- ▶ **핵심 내용 확인 문제** 소단원 제재의 주요 학습 내용을 문제를 풀며 꼼꼼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교과서 활동 점검하기]

▶ **시험에 꼭 나오는 활동 확인 문제** 학습 활동 예시 답을 참고하여 꼼꼼하게 풀어 보면 교과서 학습 내용을 쉽고 빠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시험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는  
교과서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다양한 문제를 반복적으로 풀어야 합니다.

### 비법 3

## 시험 문제 적응력을 기르기 위한 다양한 유형의 문제 풀기

#### 소단원 예상 문제

**01** 다음을 읽어서 다음 세 가지 질문에 대답하라!  
① 이 단락을 읽은 후 어떤 단락을 찾아볼 것인가?  
② 이 단락을 읽은 후 어떤 단락을 찾아볼 것인가?  
③ 이 단락을 읽은 후 어떤 단락을 찾아볼 것인가?

**02** 다음을 읽어서 다음 세 가지 질문에 대답하라!  
① 이 단락을 읽은 후 어떤 단락을 찾아볼 것인가?  
② 이 단락을 읽은 후 어떤 단락을 찾아볼 것인가?  
③ 이 단락을 읽은 후 어떤 단락을 찾아볼 것인가?

**03** 다음을 읽어서 다음 세 가지 질문에 대답하라!  
① 이 단락을 읽은 후 어떤 단락을 찾아볼 것인가?  
② 이 단락을 읽은 후 어떤 단락을 찾아볼 것인가?  
③ 이 단락을 읽은 후 어떤 단락을 찾아볼 것인가?

#### 중간·기말 시험 대비 문제

**04** 다음을 읽어서 다음 세 가지 질문에 대답하라!  
① 이 단락을 읽은 후 어떤 단락을 찾아볼 것인가?  
② 이 단락을 읽은 후 어떤 단락을 찾아볼 것인가?  
③ 이 단락을 읽은 후 어떤 단락을 찾아볼 것인가?

**05** 다음을 읽어서 다음 세 가지 질문에 대답하라!  
① 이 단락을 읽은 후 어떤 단락을 찾아볼 것인가?  
② 이 단락을 읽은 후 어떤 단락을 찾아볼 것인가?  
③ 이 단락을 읽은 후 어떤 단락을 찾아볼 것인가?

#### 서술형 대비 문제

**06** 다음을 읽어서 다음 세 가지 질문에 대답하라!  
① 이 단락을 읽은 후 어떤 단락을 찾아볼 것인가?  
② 이 단락을 읽은 후 어떤 단락을 찾아볼 것인가?  
③ 이 단락을 읽은 후 어떤 단락을 찾아볼 것인가?

**07** 다음을 읽어서 다음 세 가지 질문에 대답하라!  
① 이 단락을 읽은 후 어떤 단락을 찾아볼 것인가?  
② 이 단락을 읽은 후 어떤 단락을 찾아볼 것인가?  
③ 이 단락을 읽은 후 어떤 단락을 찾아볼 것인가?

#### 논술형 대비 문제

**08** 다음을 읽어서 다음 세 가지 질문에 대답하라!  
① 이 단락을 읽은 후 어떤 단락을 찾아볼 것인가?  
② 이 단락을 읽은 후 어떤 단락을 찾아볼 것인가?  
③ 이 단락을 읽은 후 어떤 단락을 찾아볼 것인가?

**09** 다음을 읽어서 다음 세 가지 질문에 대답하라!  
① 이 단락을 읽은 후 어떤 단락을 찾아볼 것인가?  
② 이 단락을 읽은 후 어떤 단락을 찾아볼 것인가?  
③ 이 단락을 읽은 후 어떤 단락을 찾아볼 것인가?

### [소단원 예상 문제]

소단원에서 꼭 풀어 봐야 할 다양한 유형의 문제를 선별했습니다. 차근차근 풀어 보면서 소단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시험에 빈틈없이 대비할 수 있습니다.

▶ **중요 문제** 학습 활동을 응용한 필수 문제를 통해 소단원 내용을 꼼꼼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 **고난도 문제** 고난도 수능형 문제를 통해 교과서 학습을 완성하고 수능형 사고를 기를 수 있습니다.

### [중간·기말 시험 대비 문제]

대단원의 학습 내용을 중요 문제, 고난도 문제, 서술형 문제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점검함으로써 자신의 실력을 평가하고 고득점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 [서술·논술형 대비 문제]

서술형 강화에 대비하기 위해 서술·논술형 문제의 비중을 높였습니다. 엄선된 문제를 통해 서술·논술형 문제에 철저하게 대비할 수 있습니다.

### 비법 4

## 완벽한 이해와 고득점 전략을 위한 정답과 해설

**1** 다음을 읽어서 다음 세 가지 질문에 대답하라!  
① 이 단락을 읽은 후 어떤 단락을 찾아볼 것인가?  
② 이 단락을 읽은 후 어떤 단락을 찾아볼 것인가?  
③ 이 단락을 읽은 후 어떤 단락을 찾아볼 것인가?

**2** 다음을 읽어서 다음 세 가지 질문에 대답하라!  
① 이 단락을 읽은 후 어떤 단락을 찾아볼 것인가?  
② 이 단락을 읽은 후 어떤 단락을 찾아볼 것인가?  
③ 이 단락을 읽은 후 어떤 단락을 찾아볼 것인가?

#### 정답과 해설

**1** 다음을 읽어서 다음 세 가지 질문에 대답하라!  
① 이 단락을 읽은 후 어떤 단락을 찾아볼 것인가?  
② 이 단락을 읽은 후 어떤 단락을 찾아볼 것인가?  
③ 이 단락을 읽은 후 어떤 단락을 찾아볼 것인가?

**2** 다음을 읽어서 다음 세 가지 질문에 대답하라!  
① 이 단락을 읽은 후 어떤 단락을 찾아볼 것인가?  
② 이 단락을 읽은 후 어떤 단락을 찾아볼 것인가?  
③ 이 단락을 읽은 후 어떤 단락을 찾아볼 것인가?

- 상세한 해설을 통해 정답과 오답의 이유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 서술·논술형 문제는 제시된 평가 기준을 통해 자신의 답을 스스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이 책의 차례

## 1 성장의 시간, 삶을 담은 글

(1) 성장을 담은 문학 멍키 스페너_ 진형민	8
(2) 정서를 표현하는 글 쓰기	42
■ 중간·기말 시험 대비 문제	50
■ 서술·논술형 대비 문제	58



## 2 다양한 단어, 모두의 어휘

(1) 단어의 짜임과 새말	64
(2) 어휘의 양상과 쓰임	78
■ 중간·기말 시험 대비 문제	89
■ 서술·논술형 대비 문제	96





### 3 숨어 있는 의미, 근거 있는 주장

(1) 추론하며 읽기 내가 버린 옷은 어디로 갈까_ 이주은	102
(2) 주장을 담은 글 쓰기	118
■ 중간·기말 시험 대비 문제	133
■ 서술·논술형 대비 문제	141

### 4 연결하는 매체, 해결하는 토의

(1) 슬기로운 매체 생활	146
(2) 토의로 문제 해결하기	166
■ 중간·기말 시험 대비 문제	182
■ 서술·논술형 대비 문제	188



1



# 성장의 시간, 삶을 담은 글



## (1) 성장을 담은 문학 문학

멍키 스페너 . 진형민

## (2) 정서를 표현하는 글 쓰기 쓰기

### 대단원 학습 목표

- 인간의 성장을 다룬 작품을 읽으며 문학의 가치를 내면화할 수 있다.
- 자신의 삶과 경험을 바탕으로 정서를 진솔하게 표현하는 글을 쓸 수 있다.

## (1) 성장을 담은 문학

인간의 성장을 다룬 작품을 읽으며 문학의 가치를 내면화할 수 있다.

- 소설 「명키 스페너」를 읽고 인물의 변화와 성장 과정 이해하기
- 소설 「명키 스페너」를 감상하면서 자신의 삶 성찰하기

### 핵심

- 성장 소설의 개념과 특징
- 「명키 스페너」 주인공의 성장 과정
- 「명키 스페너」의 상징적 의미와 주제

## (2) 정서를 표현하는 글 쓰기

자신의 삶과 경험을 바탕으로 정서를 진솔하게 표현하는 글을 쓸 수 있다.

- 삶과 경험을 바탕으로 정서를 진솔하게 표현하는 방법 이해하기
- 자신의 삶과 경험에서 글감을 찾아 정서를 진솔하게 표현하는 글 쓰기

### 핵심

- 정서를 표현하는 글의 개념과 종류
- 경험과 정서를 담은 글을 쓰는 방법과 과정
- 경험과 정서를 담은 글 쓰기의 가치

# 1 문학

## 성장을 담은 문학

### 소단원 핵심 미리 보기

#### 1 문학 읽기의 가치

작품 속 인물들의 생각과 행동을 통해 여러 형태의 간접 경험을 하게 됨.

- 삶의 지혜와 교훈,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음.
- 인간과 세계에 관한 이해가 넓어짐.
- 다양한 삶의 모습을 존중하게 됨.
- 자신의 삶을 성찰하게 됨.

#### 2 문학의 가치의 내면화

- 문학 작품에 담긴 가치를 자신의 삶과 관련지어 가치관을 정립하고 세계관을 확장하는 것

#### 3 성장 소설의 뜻

- 주인공이 어린 시절부터 어른이 되기까지 자신의 인격을 완성해 가는 성장 과정을 그린 소설
- 인물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고민과 어려움을 다루는 소설

#### 4 성장 소설의 특징

인물	주로 청소년과 같은 성장기를 겪고 있는 미성숙한 인물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경우가 많음. <small>변하지 않는 존재의 본질을 깨닫는 성질</small>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신의 정체성을 찾거나 깨달음.</li> <li>• 자신에게 닥친 고민이나 어려움을 극복하고 해결함.</li> <li>• 주변 사람들과의 외적 갈등을 해소하고 사회적 관계를 맺음.</li> </ul>
성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인공의 내적 갈등을 비롯한 자신의 내면세계를 진솔하게 드러내는 자기 고백적 성격을 지님. <small>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마음속의 감정이나 심리</small></li> <li>• 주인공이 자신에게 닥친 어려움을 극복하며 정신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삶의 깨달음을 얻는 교훈적 성격을 지님.</li> </ul>

#### 5 성장 소설 감상 방법

- 말과 행동으로 드러나는 인물의 심리와 태도를 살펴보고, 인물의 변화와 정신적 성장 과정을 이해함.
- 소설 속 인물의 삶과 자신의 삶을 비교하면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로 삼음.
- 소설 속 인물이 성장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이나 그것을 극복하며 깨달음을 얻는 과정 등을 통해 바람직하고 가치 있는 삶에 관해 생각해 봄.

### 시험 출제 포인트

- 1 성장 소설의 개념과 특징
- 2 「멍키스페너」 주인공의 성장 과정
- 3 「멍키스페너」의 상징적 의미와 주제

### 핵심 확인

#### 문제

정답과 해설 2쪽

#### 1. 문학 읽기의 가치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자신의 삶을 성찰하게 된다.
- ② 다양한 삶의 모습을 존중하게 된다.
- ③ 인간과 세계에 대한 이해가 넓어진다.
- ④ 삶의 지혜와 교훈, 깨달음을 얻게 된다.
- ⑤ 근거를 바탕으로 논리적으로 생각하게 된다.

#### 2. 다음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

□□□□은/는 미성숙한 인물이 주인공으로 등장해 인물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겪는 고민과 어려움을 다루는 소설이다.

#### 3. 성장 소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인물의 내적 갈등이나 외적 갈등은 나타나지 않는다.
- ② 주인공이 성장 과정에서 얻은 깨달음이 나타나기도 한다.
- ③ 주인공이 자신의 속마음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경우가 많다.
- ④ 청소년과 같이 성장 과정에 있는 인물이 주인공으로 등장한다.
- ⑤ 인물이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 가는 과정이 다루어지기도 한다.

# 멍키 스페너 \_ 진형민

## 【 소단원 핵심 정리 】

갈래	현대 소설, 단편 소설, 성장 소설
성격	사실적, 교훈적, 동화적
시점	1인칭 주인공 시점
제재	멍키 스페너
주제	어려움을 해결하며 성장하는 기쁨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상징적 소재를 사용하여 '나'의 성장을 효과적으로 드러냄.</li> <li>시간과 장소의 변화에 따른 사건 전개가 드러남.</li> </ul>

## 【 전체 구성 】

발단	엄마가 집을 비운 사이, 화장실 전등불이 나가고 세면대의 물이 내려가지 않음.
전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세면대를 고치려 하다가 그만둠.
위기	자신의 힘으로 세면대를 고치기 위해 자전거 가게에서 멍키 스페너를 빌려 옴.
절정	빌려 온 멍키 스페너를 이용하여 세면대를 고침.
결말	화장실 전구까지 새것으로 갈고 기분 좋게 엄마의 귀가를 기다림.

## 6 소설 「멍키 스페너」의 등장인물과 사건의 실마리

등장인물	'나(김한경)'와 동생 한아
시간적·공간적 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간적 배경: 엄마가 집을 비운 일주일</li> <li>공간적 배경: '나'의 집과 만년철물점, 아파트 관리 사무소, 외숙모 댁, 자전거 가게 등의 동네</li> </ul>
문제 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화장실 전등불이 나감.</li> <li>② 세면대의 배수구가 막힘.</li> </ul> <p>→ 엄마가 없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곤란한 상황에 처함.</p>

### 4. 이 글에서 '나'에게 닥친 문제 상황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 보기

- ㉠ 자전거가 고장이 남.
- ㉡ 세면대 배수구가 막힘.
- ㉢ 화장실 전등불이 나감.
- ㉣ 동생 한아가 몸이 아픔.
- ㉤ 만년철물점 할머니를 대신해 가게를 봐야 함.

- ① ㉠, ㉡
- ② ㉠, ㉡, ㉢
- ③ ㉠, ㉡, ㉣
- ④ ㉡, ㉢
- ⑤ ㉡, ㉢, ㉣

## 7 주인공 '나'의 성장과 변화

### (1) '나'의 문제 해결 과정과 성장

문제 해결 과정	성장
멍키 스페너를 이용하여 스스로 막힌 세면대를 뚫고, 화장실 전구를 사 와 직접 갈아 끼움으로써 문제를 해결함.	'나'가 혼자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면서 자신감을 얻고 정신적으로 성장함.

### (2) '나'의 성장을 보여 주는 태도 변화

스페너를 손에 쥐고 고장 난 것들을 스스로 척척 고치는 사람은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함.	→ 자신에게 닥친 문제를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할 줄 아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됨.
만년철물점이 천년만년 이 자리에 계속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함.	→ 도움을 주는 사람들에 대한 고마움과 소중함을 깨닫게 됨.
한아에게 유리컵에 오렌지주스를 따라 줌.	→ 스스로 판단하고 책임감 있게 행동하게 됨.

## 8 '멍키 스페너'의 의미와 이 소설의 주제

'멍키 스페너'의 의미	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나'에게 닥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준 도구</li> <li>'나'가 자신감을 얻고 한층 성장하게 되었음을 상징하는 물건</li> </ul>	어려움(문제)을 스스로 해결하며 성장하는 기쁨

### 5. 이 글에서 다음과 같은 의미를 지닌 소재를 2어절로 쓰시오.

'나'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와주고, '나'에게 자신감을 심어 주어 '나'를 한층 성장하게 만들어 준 물건



# 멍키 스페너 \_ 진형민

**발단** **가** 팔자 늘어졌구나 싶었다. 엄마 없이 일주일 동안 내 맘대로 살 수 있다니! 다 저녁때까지 교복도 안 벗고 소파에서 뒹구는 건 평소라면 꿈도 못 꿀 일이다. 게다가 저녁이다 된 때 나한테는 현금 십만 원이 든 봉투도 있다. 급한 일 있을 때 쓰라고 엄마가 주고 간 돈이다.

나중에 돈 생기면 사야지 했던 것들이 줄줄이 눈앞을 지나갔다. 앵두 빛깔 입술 보호제와 고양이 휴대 전화 케이스와 편의점 과자 몇 개. 뽕가 특이하고 맛있겠다 싶은 과자들은 값이 전부 삼천 원이 넘었다. 하지만 이제 가격표 따위 거들떠보지 않아도 된다. 눈 돌아가게 비싼 과자를 아침저녁으로 사 먹어도 돈이 남을 판이다.

## 나 “언니, 배고파.”

옆구리에 흑이 하나 붙어 있기는 했다. 나는 얼른 눈을 감고 자는 척했다. 여덟 살쯤 됐으면 밥 정도는 혼자 차려 먹을 수 있는 나이이다. 나는 그 나이 때 내 밥을 알아서 차려 먹은 건 물론이고 우는 아기한테 분유를 타 먹일 줄도 알았다. 내 아기도 아닌데 내가 우유병 물리고 놀아 주고 다 했다. 그런데 그때 그 갓난쟁이 **㉠** **김한아**는 아직도 아기 취급 받으며 세상 편하게 살고 있다.

“한아 가스 불 못 켜게 하고, 칼 못 만지게 하고, 유리컵도 절대 주지 말고.”

엄마는 현관문 나서는 순간까지 한아 걱정을 했다. 냉장고 안에도 한아가 좋아하는 밀반찬들을 콕콕 채워 두었다. 다행히 한아는 밥투정이 없는 편이라 밀반찬에다 달걀이나 하나씩 부쳐 주면 군소리 없이 밥을 잘 먹긴 한다. 한아 발소리가 저만큼 멀어졌다. 내가 진짜로 자는 줄 알았나 보다.

## 다 졸졸졸졸졸.

오줌 누는 소리가 들렸다. 화장실 문이 열려 있어서 그런지 소리가 더 크게 들렸다. 똥 누는 게 아니라 얼마나 다행이야. 애써 느긋한 척하는데 한아가 **㉡** 응, 힘주는 소리를 냈다. 그래도 문 닫고 싸라는 말을 차마 못 했다. 그저께 화장실 전등불이 나갔기 때문이다. 엄마가 없는 줄 어떻게 알고 그날 밤 귀신같이 불이 나갔다. 화장실에는 창문이 없어서 낮에도 불을 안 켜면 뭐가 뭔지 하나도 보이지를 않는다. 그러니 어쩔잖나. 사실은 나도 화장실 문을 반쯤 열어 두고 불일을 보는 중이다.

“언니이이이.”

**㉢** **한아가** 또 나를 불렀다. 뒤를 길게 늘어 부른다는 건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생겼다는 뜻이다. 계속 자는 척할까 하다 그냥 일어났다. 슬슬 배가 고파 왔다.

### 핵심 훑기

#### 1. '나'의 상황과 심리

**'나'의 상황** 엄마가 없는 일주일 동안 마음대로 할 수 있고, 현금 십만 원으로 평소에 사고 싶었던 물건을 마음대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함.

**'나'의 심리** 해방감, 만족감

#### 2. 성장 소설 주인공인 '나'

<b>성장 소설의 주인공</b>	<b>'나'</b>
성장기를 겪고 있는 미성숙한 인물	교복을 입고 학교에 다니는 학생(청소년)

#### 3. 한아와 대비되는 '나'의 여덟 살 때 모습

**'나'**

- 밥을 알아서 차려 먹음.
- 우는 아기(한아)한테 분유를 타 먹임.
- 아기한테 우유병도 물리고 놀아 줌.

**한아**

- 언니('나')가 차려 주는 밥을 먹음.
- 아직도 아기 취급 받으며 세상 편하게 살고 있음.

### 핵심 체크

정답과 해설 2쪽

1. '나'는 엄마 없이 일주일 동안 동생을 돌보며 생활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 ×)
2. '나'는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 불만스럽고 답답한 감정을 느끼고 있다. (○, ×)
3. '나'는 자신이 여덟 살이었을 때는 현재 여덟 살인 한아와 달리 정신적으로 성숙했다고 생각하고 있다. (○, ×)
4. '나'와 한아는 화장실 전등불이 나가서 화장실 문을 열고 불일을 보고 있다. (○, ×)

**핵심 내용 확인 문제 01**

**01** 이 글의 ‘나’가 처한 상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현금 십만 원을 가지고 있다.
- ② 어린 동생을 혼자서 돌봐야 한다.
- ③ 일주일 동안 엄마 없이 지내야 한다.
- ④ 평소 사고 싶었던 물건을 사도 돈이 여유롭다.
- ⑤ 엄마가 시킨 전등불 갈기 작업을 하기 싫어 미루는 중이다.

**02** (가)에 드러난 ‘나’의 심리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기**

- |        |          |          |
|--------|----------|----------|
| ㄱ. 해방감 | ㄴ. 불안감   | ㄷ. 두려움   |
| ㄹ. 귀찮음 | ㅁ. 당황스러움 | ㅂ. 만족스러움 |

- ① ㄱ, ㅂ
- ② ㄴ, ㄷ
- ③ ㄴ, ㄹ
- ④ ㄷ, ㅁ
- ⑤ ㅁ, ㅂ

**03**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나이는 여덟 살이다.
- ② 나이에 비해 정신적으로 성숙하다.
- ③ 아기 때 ‘나’의 돌봄을 받으며 자랐다.
- ④ 성격은 까탈스럽지 않고 순한 편이다.
- ⑤ ‘나’가 차려 주는 밥을 먹으며 지내고 있다.

**04** ㉡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심심해서 같이 놀아 달라고 말하려고
- ② 불일을 본 뒤에 뒤처리를 부탁하려고
- ③ 화장실 문을 닫아 달라고 부탁하려고
- ④ 배가 고파서 밥을 차려 달라고 말하려고
- ⑤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생겼음을 알리려고

**서술형**

**05** [A]에서 ‘나’와 한아가 겪고 있는 문제 상황을 <조건>에 맞게 서술하시오.

**조건**

- ‘나’와 한아에게 발생한 문제와 그로 인해 ‘나’와 한아가 겪는 불편함을 쓸 것.

- **인물의 심리 제시 방법**
- **직접적 제시:** 인물의 심리를 서술자가 직접 설명하는 방법  
 ㉠ ‘팔자 늘어졌구나 싶었다.’: 팔자가 늘어졌다는 표현을 통해 근심과 걱정이 없는 편안함과 그로 인한 만족감과 해방감을 직접적으로 드러냄.
- **간접적 제시:** 인물의 심리를 인물의 행동이나 대화를 통해 간접적으로 제시하는 방법  
 ㉡ “한아 가스 불 못 켜게 하고, 칼 못 만지게 하고, 유리컵도 절대 주지 말고.”: 대화를 통해 한아를 걱정하는 엄마의 마음을 간접적으로 드러냄.

1 이 글의 내용을 떠올리며 다음 물음에 답해 보자.

(1) 시간과 장소의 변화에 따라 이 글의 줄거리를 정리해 보자. **예시 답**

엄마가 집을 비운

세 번째 날 **집** 엄마 없이 동생과 둘이 지내던 중 화장실 세면대가 막혀 물이 빠지지 않음. → 네 번째 날 **만년철물점** 주인 할머니께 세면대 문제를 말씀드리고 해결책을 여쭙어 봄. → **관리사무소** 관리 사무소에 계신 아저씨께 도움을 요청하려다가 엄마의 당부가 생각나 그냥 집에 돌아옴. → **외숙모댁** 외숙모가 차려 주신 저녁을 먹고, 외숙모가 싸 주신 남은 김치찌개를 받아 집으로 돌아옴. → **다섯 번째 날** **자전거 가게** 사장님께 멍키 스페너를 빌림. → **집** 어젯밤에 찾아본 배수관 수리 방법을 참고하여 막힌 세면대 배수관을 고침. → **만년 철물점** 화장실 전구를 사고, 주인 할머니께 전구 갈아 끼우는 법을 배움. 멍키 스페너의 가격을 확인함. → **집** 화장실 전구를 간 다음 동생을 목욕시키고, 엄마와 통화하면서 사고 싶은 것에 관해 이야기함.

(2) 사건 전개에 따른 '나'의 감정 변화를 알아보자. **예시 답**

사건	'나'의 감정
화장실 세면대가 막혔을 때	매우 당황함.
관리 사무소에서 해결 방법을 찾지 못했을 때	걱정스러움.
스스로 화장실 문제를 해결했을 때	자신감을 얻음.

(3) 다음 구절을 바탕으로 '멍키 스페너'의 의미를 생각해 보자.

내 손아귀의 힘이 **스페너**를 통과하면서 몇 배로 커지는 느낌이었다. 스페너를 쥔 내 손이 단단히 조여져 도무지 풀릴 것 같지 않던 너트를 거뜰히 움직였고, 나는 그런 내 모습이 마음에 들었다. (29쪽)

**멍키 스페너**

- '나'에게 닥친 문제를 스스로 ( **해결** )하는 데 도움을 주는 도구
- '나'가 자신감을 얻고 한층 ( **성장** )하게 되었음을 상징하는 물건

01. 이 글의 서술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시간과 공간의 변화에 따라 사건이 전개되고 있다.
- ② 과거를 회상하는 방식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다.
- ③ 주로 주인공의 동생 한아의 시각에서 이야기가 전개된다.
- ④ 인물의 속마음을 서술하지 않고 대화와 행동만을 보여 주고 있다.
- ⑤ 동일한 사건을 여러 사람의 시선으로 바라보며 내용을 서술하고 있다.

02. 다음 (가)와 (나)에 드러난 '나'의 심리를 각각 한 단어로 쓰시오.

(가) 물이 내려가지 않았다. 손으로 더듬어 보니, 마개가 구멍 안으로 쏙 들어간 상태였다. 뭐지? 그럼 방금 전에 열려 있었다는 말인가?

(나) 우리는 엄마 없는 다섯 번째 밤을 보내는 중이고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와 있었다. 잘했어, 김한경. 나는 눈을 감은 채 혼자 웃었다. 엄마가 오려면 이제 이틀 남았다.

03. 이 글에서 다음과 같은 의미를 지닌 소재를 한 단어로 쓰시오.

'나'에게 닥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준 도구로, '나'가 자신감을 얻고 한층 성장하게 되었음을 상징하는 물건이다.

## 2 이 글에 나타난 '나'(한경)의 성장 과정을 살펴보자.

(1) 다음 구절을 바탕으로 '나'의 태도가 변화한 과정을 생각해 보자. **예시 답**

가

그때 내 머릿속에는 어떤 일에도 결코 호들갑 떨지 않고 상대의 심장을 쿡쿡 찌르는 말을 내뱉는 머리 짧은 여자애가 있었다. 초등학교에서의 마지막 해였고, 나는 그런 애로 아이들 기억 속에 남고 싶었던 것 같다. (17쪽)

어떤 일에도 호들갑 떨지 않고 상대의 심장을 쿡쿡 찌르는 말을 내뱉는 사람은 되지 못했지만, 스페너를 손에 쥐고 고장 난 것들을 스스로 척척 고치는 사람은 될 수 있을 것 같았다. (29쪽)

변화한 태도

남에게 보이는 모습을 중요하게 여기기보다 자신의 일을 스스로 잘해 나가는 사람 이/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나

만년철물점. 볼 때마다 가게 이름이 좀 지나치다는 생각이 들었다. 천년만년 철물점을 하겠다는 뜻인 것 같은데, 뭘 그렇게까지 굳센 의지로 장사를 하나 싶었다. (18쪽)

가게 이름은 여전히 마음에 안 들지만, 만년철물점이 천년만년 이 자리에 계속 있는 건 나도 찬성이다. (28쪽)

변화한 태도

주변에서 도움을 주는 사람들에게 고마움과 소중함을 깨닫게 되었다.

다

“한아 가스 불 못 켜게 하고, 칼 못 만지게 하고, 유리컵도 절대 주지 말고.”  
엄마는 현관문 나서는 순간까지 한아 걱정을 했다. (15쪽)

나는 유리컵 두 개에 오렌지주스를 따랐다. 엄마는 한아한테 유리컵 주지 말라고, 깨뜨리면 다친다고 했지만 그렇다고 언제까지나 플라스틱 컵만 쓰게 할 수는 없다. (29쪽)

변화한 태도

자신의 주변 상황을 스스로 판단하고 책임감 있게 행동하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다.

**04.** 이 글을 다음 밑줄 친 부분과 같이 해석할 수 있는 근거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이 작품의 주인공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자기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 대한 태도가 변화하면서 한층 성장하게 된다.

보기

- ㄱ. '나'는 문제를 해결한 후 한아 목욕을 시키면서 한아와 함께 만족감을 느낀다.
- ㄴ. '나'는 자신과 함께 문제를 해결한 동생 한아에게 유리컵에 오렌지주스를 따라 준다.
- ㄷ. '나'는 문제를 해결한 후 스페너를 손에 쥐고 고장난 것들을 스스로 척척 고치는 사람은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한다.
- ㄹ. '나'는 자신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준 주인 할머니가 계신 만년철물점이 오래도록 장사를 계속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ㄹ
- ⑤ ㄱ, ㄴ, ㄷ, ㄹ

**05.** 이 글의 등장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만년철물점 할머니는 '나'가 화장실의 세면대와 전등불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 ② 외숙모는 엄마가 없는 동안 스스로 밥을 챙겨 먹어야 하는 '나'와 한아를 배려하여 저녁밥을 차려 주었다.
- ③ 관리 사무소 아저씨는 '나'가 화장실 문제 때문에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조언해 주었다.
- ④ 동생 한아는 세면대의 물을 퍼서 버리고 휴대 전화 손전등으로 불빛을 비춰 주면서 '나'의 작업을 도와주었다.
- ⑤ 자전거 가게 사장님은 '나'에게 명키 스페너를 빌려주어 '나'가 혼자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와주었다.

소단원 예상 문제

[01~0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물이 내려가지 않았다. 손으로 더듬어 보니, 마개가 구멍 안으로 쏙 들어간 상태였다. ㉠ 뭘지? 그럼 방금 전에 열려 있었다는 말인가? 마개를 다시 눌렀다. 마개가 위로 올라오면서 손끝으로 틈새가 만져졌다. 그런데 물이 조금도 내려가지 않았다. / “나도 해 봤어. 근데 안 돼.” / ㉡ 한아가 이마를 찡그렸다. 나는 한아가 손을 마저 행굴 수 있게 샤워기 물을 틀었다. 한아가 화장실 바닥에 쪼그려 앉아 손을 비벼 씻었다. 불이 안 들어오는 화장실에 물이 안 내려가는 세면대라니! 일이 점점 더 꼬이고 있었다. 엄마가 집에 오려면 아직 사 일이나 남았다.

나 세면대가 비었으니 이제 일을 시작할 때다. 작업 순서는 머릿속에 다 있었다. 동영상을 다섯 번쯤 돌려 봤더니 저절로 외워졌다. 일단 구부러진 배수관 양쪽에 조여져 있는 너트를 풀어야 한다. 너트를 꼭 물도록 멍키 스패너의 입 크기를 조절하고 힘주어 왼쪽으로 돌렸다. 한두 번은 좀 뻑뻑하게 돌아갔지만 그 뒤로는 술술 풀렸다. 양쪽 너트가 모두 헐렁해지자 배수관의 구부러진 부분이 통째로 떨어져 나왔다. / ㉢ “으아악!” / 배수관 끝에 검고 축축한 덩어리가 늘어져 있었다. 오래된 늪에서 건져 올린 쓰레기 같았다. 냄새도 지독했다. / “한아야, 나가 있어.” / 한아가 손가락으로 코를 째고 고개를 도리도리했다. 코딱지만 한 게 그래도 의리가 있다.

다 ㉣ “틀어? 튼다?” / 한아가 수도꼭지를 잡고 자꾸 물었다. 마음이 조마조마한 듯했다. 사실은 나도 그랬다. 싸아아 물이 쏟아졌다. 세면대에 잠깐 차오르던 물이 마개 틈새로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꼬르륵, 꼬르륵, 마지막 물 한 방울까지 짹 내려가고 세면대가 텅 비었다. ㉤ “별것도 아니네.” / 내가 말했다. / “별것도 아니네.” 한아가 내 말을 따라 하며 웃었다.

라 멍키 스패너를 짹 쥐었을 때의 느낌이 아직도 생생했다. ㉦ 내 손아귀의 힘이 스패너를 통과하면서 몇 배로 커지는 느낌이었다. 스패너를 쥐 내 손이 단단히 조

여져 도무지 풀릴 것 같지 않던 너트를 거뜬히 움직였고, 나는 그런 내 모습이 마음에 들었다. 어떤 일에도 호들갑 떨지 않고 상대의 심장을 쿡쿡 찌르는 말을 내뱉는 사람은 되지 못했지만, 스패너를 손에 쥐고 고장난 것들을 스스로 척척 고치는 사람은 될 수 있을 것 같았다.

01 이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나’가 주인공이고 한아는 주변 인물이다.
- ② 사건이 일어나는 장소는 ‘나’의 집 화장실이다.
- ③ 엄마가 집에 없는 상황에서 이야기가 펼쳐진다.
- ④ ‘나’가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직접 서술하고 있다.
- ⑤ 현재형 문장을 사용하여 실감 나는 느낌을 준다.

중요

02 (가)~(라)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때 ㉠~㉤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	㉠ 문제의 발생	㉤ 세면대의 물이 내려가지 않음.
(나)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 ‘나’가 멍키 스패너를 사용하여 세면대 배수관을 분리함.
(다)	문제의 해결	㉣ 세면대의 배수구가 완전히 뚫림.
(라)	문제 해결 후의 느낌과 생각	㉦ ‘나’가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준 한아에게 앞으로 잘해 줘야겠다고 다짐함.

- ① ㉠      ② ㉡      ③ ㉢      ④ ㉣      ⑤ ㉤

03 ㉠~㉤에 담긴 인물의 심리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당황스러움      ② ㉡: 짜증스러움
- ③ ㉢: 놀람      ④ ㉣: 조바심
- ⑤ ㉤: 아쉬움

중요

04 (가)~(다)의 내용을 고려하여 ㉦의 의미를 <조건>에 맞게 한 문장으로 서술하십시오.

조건

- ‘나’의 심리가 드러나게 쓸 것.
- 이 글의 주제와 관련지어 쓸 것.

**[05~0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그런데 물이 조금도 내려가지 않았다.

“나도 해 봤어. 근데 안 돼.” / 한아가 이마를 찡그렸다. 나는 한아가 손을 마저 행굴 수 있게 샤워기 물을 틀었다. 한아가 화장실 바닥에 쪼그려 앉아 손을 비벼 씻었다. 불이 안 들어오는 화장실에 물이 안 내려가는 세면대라니! 일이 점점 더 꼬이고 있었다. 엄마가 집에 오려면 아직 사 일이나 남았다.

**나** 학교 갔다 집에 오는 길에 철물점에 들렀다. 만년철물점. 볼 때마다 가게 이름이 좀 지나치다는 생각이 들었다. 천년만년 철물점을 하겠다는 뜻인 것 같은데, 뭘 그렇게까지 굳센 의지로 장사를 하나 싶었다. (중략)

“집에 세면대 물이 안 내려가서요.”

“물이 쭈쭈쭈 내려가? 아니면 아예 안 내려가?”

“아예 안 내려가요.” / “그거는 저기다 물어봐야지.”

할머니가 길 건너 가게를 가리켰다. 한성설비, 맨날 지나다니는 길인데 저런 가게가 있는 줄 처음 알았다. 세면대, 화장실, 싱크대, 막힌 건 뭐든 다 뚫어 주는 데라고 했다. 역시 세상에 해결하지 못할 일은 없다. 나는 엄마가 주고 간 돈을 좀 쓰더라도 세면대를 뚫기로 했다.

**다** 돈이 많다면야 오만 원이든 얼마든 순순히 낼 수 있겠지만 내 형편이 그렇지 않은 걸 어떡하나. 전 재산의 절반을 털어 세면대를 뚫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꾸벅 인사를 하고 돌아서는데 할머니가 가게 밖까지 나를 따라 나왔다.

“그러면 관리 사무소에 한번 가 보든가. 원래 세면대까지는 안 봐 주는데 또 모르지, 말을 잘하면 봐 줄지도.”

나는 한성설비 쪽으로는 고개도 안 돌리고 부지런히 걸음을 옮겼다. 아파트 관리 사무소에는 한 번도 가 본 적 없다. 가끔 거실 벽에 붙어 있는 스피커로 “관리 사무소에서 알려 드립니다.” 어찌고저찌고하는 방송을 들어서 귀에 익숙하기는 한데 저기가 뭐 하는 곳인지, 어디에 붙어 있는지는 알지 못했다. / “있다!”

**라** “집에 어른 안 계셔? 왜 학생이 왔어?”

아저씨가 또 물었다. 나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 세면대를 고치려면 처음 보는 아저씨가 집 안으로 들어와

야 한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집에는 나와 한아밖에 없다는 사실을.

“엄마 밖에 계세요. 엄마랑 같이 올게요.”

나는 유리문을 열고 계단을 뛰어 올라갔다. 그리고 길을 빙빙 돌아 집으로 갔다. **㉠**누가 뒤따라오지 않는지 돌아보고 싶었지만 그럴 수가 없었다. 진짜로 누가 있을까 봐 가슴이 쿵쿵 뛰었다.

**05** 이와 같은 글을 읽는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작품 속 인물의 변화와 성장 과정을 이해한다.
- ② 작품 속 인물과 비교하면서 자신의 삶을 성찰한다.
- ③ 작품 속 인물의 말과 행동의 타당성을 비판적으로 따져 본다.
- ④ 작품 속 인물의 삶을 통해 얻은 깨달음을 자기 성장의 계기로 삼는다.
- ⑤ 작품 속 인물의 갈등 해결 과정을 통해 바람직하고 가치 있는 삶에 관해 생각한다.

**06** 이 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나’의 집 화장실 불이 나간 상황이다.
- ② ‘나’는 엄마가 집에 없을 때 문제가 생겨 난처해하고 있다.
- ③ ‘나’는 돈이 많이 든다는 것을 알고 한성설비에 수리를 맡기지 않았다.
- ④ 만년철물점 할머니에게 세면대 물이 안 내려간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다.
- ⑤ 관리 사무소에 가서 거짓말로 상황을 설명하고 세면대 문제를 부탁하였다.

**서술형**

**07** ㉠에 나타난 ‘나’의 심리와 그것을 통해 알 수 있는 ‘나’의 면모를 <조건>에 맞게 서술하십시오.

**조건**

- ‘~ 면모를 확인할 수 있다.’의 형식의 한 문장으로 쓸 것.
- ‘나’가 두려움을 느끼는 대상(인물)을 언급할 것.

[01~0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 팔자 늘어졌구나 싶었다. 엄마 없이 일주일 동안 내 맘대로 살 수 있다니! 다저녁때까지 교복도 안 벗고 소파에서 뒹구는 건 평소라면 꿈도 못 꿀 일이다. 게다가 나한테는 현금 십만 원이 든 봉투도 있다. 급한 일이 있을 때 쓰라고 엄마가 주고 간 돈이다.

나중에 돈 생기면 사야지 했던 것들이 줄줄이 눈앞을 지나갔다. 앵두 빗갈 입술 보호제와 고양이 휴대 전화 케이스와 편의점 과자 몇 개. 뭔가 특이하고 맛있겠다 싶은 과자들은 값이 전부 삼천 원이 넘었다. 하지만 이제 가격표 따위 거들떠보지 않아도 된다. 눈 돌아가게 비싼 과자를 아침저녁으로 사 먹어도 돈이 남을 판이다.

나 “언니, 배고파.” / ㉡ 옆구리에 혹이 하나 붙어 있기는 했다. 나는 얼른 눈을 감고 자는 척했다. 여덟 살쯤 됐으면 밥 정도는 혼자 차려 먹을 수 있는 나이이다. 나는 그 나이 때 내 밥을 알아서 차려 먹은 건 물론이고 우는 아기한테 분유를 타 먹일 줄도 알았다. 내 아기도 아닌데 내가 우유병 물리고 놀아 주고 다 했다. 그런데 그때 그 갓난쟁이 김한아는 아직도 아기 취급 받으며 세상 편하게 살고 있다.

다 물이 내려가지 않았다. 손으로 더듬어 보니, 마개가 구멍 안으로 쏙 들어간 상태였다. ㉢ 뭘지? 그럼 방금 전에 열려 있었다는 말인가? 마개를 다시 눌렀다. 마개가 위로 올라오면서 손끝으로 틈새가 만져졌다. 그런데 물이 조금도 내려가지 않았다.

“나도 해 봤어. 근데 안 돼.”

한아가 이마를 찡그렸다. 나는 한아가 손을 마저 헹굴 수 있게 샤워기 물을 틀었다. 한아가 화장실 바닥에 쪼그려 앉아 손을 비벼 씻었다. ㉣ 물이 안 들어오는 화장실에 물이 안 내려가는 세면대라니! 일이 점점 더 꼬이고 있었다. 엄마가 집에 오려면 아직 사 일이나 남았다.

라 아무튼 세면대 물이 안 내려가는 이유는 우리 자매가 이토록 긴 머리를 세면대에 거꾸로 쏟아 놓고 샴푸를 쭉쭉 짜서 구석구석 비벼 감고 행구는 동안 배수구 구멍으로 빠져나간 머리카락들 때문이라고 짐작했다. 그러니 ㉤ 이를 어쩌면 좋단 말인가. 밥을 한 그릇 다

먹었는데도 적당한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다. 밥을 한 그릇 더 먹어 보기로 했다.

마 학교 갔다 집에 오는 길에 철물점에 들렀다. 만년철물점. 볼 때마다 가게 이름이 좀 지나치다는 생각이 들었다. 천년만년 철물점을 하겠다는 뜻인 것 같은데, 뭘 그렇게까지 굳센 의지로 장사를 하나 싶었다. (중략)

할머니가 구석에서 식사하다 말고 나왔다. 점심을 먹기에는 늦은 시간이었다. / “아뇨. 뭐 사러 온 건 아니고…….”

교복 윗도리 주머니에 두 손을 밀어 넣었다. 뭘 사러 온 게 아니라서 괜히 눈치가 보였다.

“집에 세면대 물이 안 내려가세요.”

“물이 쭙쭙쭙 내려가? 아니면 아예 안 내려가?”

“아예 안 내려가요.” / “그저는 저기다 물어봐야지.”

할머니가 길 건너 가게를 가리켰다. 한성설비, 맨날 지나다니는 길인데 저런 가게가 있는 줄 처음 알았다. 세면대, 화장실, 싱크대, 막힌 건 뭐든 다 뚫어 주는 데라고 했다. 역시 세상에 해결하지 못할 일은 없다. 나는 엄마가 주고 간 돈을 좀 쓰더라도 세면대를 뚫기로 했다. / “대충 얼마쯤 해요?”

바 할머니 말도 틀린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고개를 끄덕일 수도 없었다. 돈이 많다면야 오만 원이든 얼마든 순순히 낼 수 있겠지만 내 형편이 그렇지가 않은 걸 어떡하나. 전 재산의 절반을 털어 세면대를 뚫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꾸벅 인사를 하고 돌아서는데 할머니가 가게 밖까지 나를 따라 나왔다.

“그러면 관리 사무소에 한번 가 보든가. 원래 세면대까지는 안 봐 주는데 또 모르지, 말을 잘하면 봐 줄지도.”

나는 한성설비 쪽으로는 고개도 안 돌리고 부지런히 걸음을 옮겼다. 아파트 관리 사무소에는 한 번도 가 본 적 없다. 가끔 거실 벽에 붙어 있는 스피커로 “관리 사무소에서 알려 드립니다.” 어찌고저찌고하는 방송을 들어서 귀에 익숙하기는 한데 거기가 뭐 하는 곳인지, 어디에 붙어 있는지는 알지 못했다. / “있다!”

사 “집에 어른 안 계셔? 왜 학생이 왔어?” / 아저씨가 또 물었다. 나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 세면대를 고치려면 처음 보는 아저씨가 집 안으로 들어와야 한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집에는 나와 한아밖에 없다는 사실을. / “엄마 밖에 계세요. 엄마랑 같이 올게요.”

[01~0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나도 해 봤어. 근데 안 돼.” / 한아가 이마를 찡그렸다. 나는 한아가 손을 마저 행굴 수 있게 샤워기 물을 틀었다. 한아가 화장실 바닥에 쪼그려 앉아 손을 비벼 씻었다. 불이 안 들어오는 화장실에 물이 안 내려가는 세면대라니! 일이 점점 더 꼬이고 있었다. 엄마가 집에 오려면 아직 사 일이나 남았다.

나 학교 갔다 집에 오는 길에 철물점에 들렀다. 만년철물점. 볼 때마다 가게 이름이 좀 지나치다는 생각이 들었다. 천년만년 철물점을 하겠다는 뜻인 것 같은데, 뭘 그렇게까지 굳센 의지로 장사를 하나 싶었다. (중략)

“집에 세면대 물이 안 내려가서요.”

“물이 쭈쭈쭈 내려가? 아니면 아예 안 내려가?”

“아예 안 내려가요.” / “그거는 저기다 물어보아야지.”

할머니가 길 건너 가게를 가리켰다. 한성설비, 맨날 지나다니는 길인데 저런 가게가 있는 줄 처음 알았다. 세면대, 화장실, 싱크대, 막힌 건 뭐든 다 뚫어 주는 데라고 했다. 역시 세상에 해결하지 못할 일은 없다. 나는 엄마가 주고 간 돈을 좀 쓰더라도 세면대를 뚫기로 했다.

다 할머니 말도 틀린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고개를 끄덕일 수도 없었다. 돈이 많다면야 오만 원이든 얼마든 순순히 낼 수 있겠지만 내 형편이 그렇지가 않은 걸 어떡하나. 전 재산의 절반을 털어 세면대를 뚫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꾸벅 인사를 하고 돌아서는데 할머니가 가게 밖까지 나를 따라 나왔다.

“그러면 관리 사무소에 한번 가 보든가. 원래 세면대까지는 안 봐 주는데 또 모르지, 말을 잘하면 봐 줄지도.”

라 “집에 어른 안 계셔? 왜 학생이 왔어?”

아저씨가 또 물었다. 나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 세면대를 고치려면 처음 보는 아저씨가 집 안으로 들어와야 한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집에는 나와 한아밖에 없다는 사실을.

“엄마 밖에 계세요. 엄마랑 같이 올게요.”

나는 유리문을 열고 계단을 뛰어 올라갔다. 그리고

길을 빙빙 돌아 집으로 갔다. 누가 뒤따라오지 않는지 돌아보고 싶었지만 그럴 수가 없었다. 진짜로 누가 있을까 봐 가슴이 쿵쿵 뛰었다.

마 나는 이불 속에서 ‘막힌 세면대 뚫는 법’에 관한 동영상은 스무 개쯤 찾아봤다. 그리고 마침내 가장 확실해 보이는 방법을 발견했다. 요 정도는 얼추 따라 할 수 있겠다 싶었고, 무엇보다 돈이 전혀 들지 않는다는 점이 마음에 들었다. 그런데 도구가 하나 필요했다. 동영상에 나온 사람이 손에 들고 있는 도구 이름을 알려줬다. 멩키 스페너, 나는 그걸 어디서 봤는지 금방 기억해 냈다.

바 자전거 가게 사장님은 멩키 스페너를 어디에 쓰려고 하는지 꼬치꼬치 묻더니, 쓰고 나서 바로 가져와야 한다고 몇 번이나 말했다. 나는 그러겠다고 대답했다. 가방에 멩키 스페너를 챙겨 넣고 다시 자전거에 올라타는데 사장님이 우리 자전거 체인에 기름을 조금씩 발라 주었다.

사 세면대가 비었으니 이제 일을 시작할 때다. 작업 순서는 머릿속에 다 있었다. 동영상을 다섯 번쯤 돌려 봤더니 저절로 외워졌다. 일단 구부러진 배수관 양쪽에 조여져 있는 너트를 풀어야 한다. 너트를 꼭 물도록 멩키 스페너의 입 크기를 조절하고 힘주어 왼쪽으로 돌렸다. 한두 번은 좀 뻑뻑하게 돌아갔지만 그 뒤로는 술술 풀렸다. 양쪽 너트가 모두 헐렁해지자 배수관의 구부러진 부분이 통째로 떨어져 나왔다. / “오아악!”

배수관 끝에 검고 축축한 덩어리가 늘어져 있었다. 오래된 늪에서 건져 올린 쓰레기 같았다. 냄새도 지독했다.

아 썩아아 물이 쏟아졌다. 세면대에 잠깐 차오르던 물이 마개 틈새로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꼬르륵, 꼬르륵, 마지막 물 한 방울까지 싹 내려가고 세면대가 텅 비었다.

“별것도 아니네.” / 내가 말했다. / “별것도 아니네.”

한아가 내 말을 따라 하며 웃었다.

자 멩키 스페너를 꼭 쥐었을 때의 느낌이 아직도 생생했다. 내 손아귀의 힘이 스페너를 통과하면서 몇 배로 커지는 느낌이었다. 스페너를 쥐 내 손이 단단히 조여



## 1

### 성장의 시간, 삶을 담은 글

#### 1 성장을 담은 문학

소단원 핵심 미리 보기 본문 8~9쪽

핵심 확인 문제 | 1 ⑤ 2 성장 소설 3 ① 4 ④  
5 명키 스페너

- ⑤는 타당한 근거를 들어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펼치는 주장하는 글을 읽을 때 얻을 수 있는 효과이다.
- 성장 소설은 성장기에 있는 주인공이 성장 과정에서 겪는 고민과 어려움을 다루거나 이를 극복하는 과정을 그린다.
- 성장 소설에서는 인물의 내적 갈등을 비롯한 내면세계가 진솔하게 드러나고, 주변 사람들과의 외적 갈등이 드러나기도 한다.
- 엄마가 없는 사이에 화장실 불이 나가고 세면대가 막히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 명키 스페너는 막힌 세면대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준 도구로, '나'는 명키 스페너로 세면대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자신감을 얻고 성장의 기쁨을 느낀다.

소단원 핵심 확인하기 본문 10~11쪽

핵심 체크 | 1 ○ 2 × 3 ○ 4 ○  
핵심 내용 확인 문제 01 | 1 ⑤ 2 ① 3 ② 4 ⑤  
5 엄마가 없는 동안에 화장실 전등불이 나가서 화장실 문을 열어 두고 불일을 보고 있다.

- 한아의 엄마는 전등불이 나가기 전 이미 집에 없는 상황이므로 전등불 갈기 작업을 시킨 적이 없다.
- (가)에서 '나'는 엄마 없이 지내는 것에 대해 팔자가 늘어졌다고 생각하며 만족감과 해방감을 느끼고 있다.

- '나'는 한아가 아직도 아기 취급을 받으며 세상 편하게 살고 있다고 말하며, 자신이 여덟 살 때는 지금의 한아와 달리 정신적으로 성숙했음을 강조하고 있다.
- ㉠의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생겨서 언니를 부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서술형] (다)에서는 엄마가 없을 때 화장실 전등불이 나가는 문제 상황이 발생하여 동생 한아와 '나'가 문을 열어 둔 채로 불일을 보는 불편함을 겪고 있는 상황이 제시되어 있다.

소단원 핵심 확인하기 본문 12~13쪽

핵심 체크 | 1 불 / 전등불, 세면대 2 ○ 3 × 4 ×  
핵심 내용 확인 문제 02 | 1 ⑤ 2 ② 3 ② 4 '나'와 한아가 세면대에서 머리를 감았기 때문이다.

- '불이 안 들어오는 화장실에 물이 안 내려가는 세면대 라니!'라는 말에서 '나'가 엄마 없이 지내는 상황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이 요약되어 드러나 있다.
- '나'는 동생 한아의 머리를 감겨 주거나 한아에게 저녁 밥을 차려 주고 한아의 머리를 묶어 주는 등 동생을 잘 돌보고 있다. 또한 세면대가 막히는 문제가 발생하자 문제의 원인을 고민하면서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 오답 해설

- '나'가 동생에게 잔소리를 하려다가 그만둔 것은 막힌 세면대 문제의 원인을 고민하기 위해서이지, 잔소리를 안 해도 되어 즐거워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 '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제의 원인을 찾고 있으므로 문제를 외면하고 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나'는 세면대 물이 내려가지 않는 이유가 한아가 자기도 모르게 마개를 눌렀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으나, 자신의 예상과 달리 마개가 열려 있었다는 것을 알고 당황하고 있다.
- [서술형] '나'는 세면대가 막힌 원인을 곰곰이 생각하다가 어제와 오늘 세면대에서 자신의 머리도 감고 한아의 머리도 감겠다는 사실을 떠올린다. 이로 인해 머리 카락이 배수구를 막아 세면대가 막혔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소단원 핵심 확인하기

본문 14~15쪽

| 핵심 체크 | 1 ○ 2 × 3 ○ 4 ○

| 핵심 내용 확인 문제 03 | 1 ③ 2 ③ 3 ③ 4 '이'를 어쩌면 중단 말인가.'라는 표현에서 '나'가 해결책을 찾지 못해 막막하고 답답한 마음임을 알 수 있다.

- 1 '나'는 동생 한아가 자신과 다르게 여러 아이들 사이에서 눈에 띄기를 바랐기 때문에 머리를 자르지 못하게 하고 긴 머리를 예쁘게 꾸며 주며 관리를 하였다.
- 2 '나'는 과거에 머리를 잘랐다가 얼굴이 커 보인다는 놀림을 받아 상처를 입고 머리를 기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평범한 아이로 남고 싶지 않아 머리를 기른다는 것은 적절한 설명이 아니다.
- 3 '나'와 한아의 머리카락을 청소하며 엄마가 하는 잔소리를 '이노무', '가시나'와 같은 비속어와 '찍', '찍찍', '찍찍찍'과 같은 의성어를 사용하여 실감 나게 표현하고 있다.

오답 해설

- ㄴ. 비유적 표현은 표현하려는 대상을 다른 대상에 빗대어 표현하는 것을 말하는데, ①에 비유적 표현은 사용되지 않았다.
- ㄷ. 머리카락을 찍어 내며 엄마가 하는 잔소리와 머리카락을 찍어 낼 때의 소리가 표현된 것일 뿐, 엄마의 표정이나 행동은 묘사되지 않았다.

- 4 [서술형] '나'는 세면대가 막힌 원인이 자신과 한아가 세면대에서 머리를 감는 바람에 배수구 구멍으로 빠져나간 긴 머리카락들이 배수구를 막았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알 수가 없어 막막하고 답답한 마음을 '이를 어쩌면 중단 말인가.'라는 표현을 통해 드러내고 있다.

소단원 핵심 확인하기

본문 16~17쪽

| 핵심 체크 | 1 ○ 2 × 3 ○ 4 ○

| 핵심 내용 확인 문제 04 | 1 ⑤ 2 ② 3 ④ 4 '나'는 가격이 너무 비싸다고 생각하고, 할머니는 적당한 가격이라고 생각한다. 5 ① 세면대 배수구가 막힌 것을 한성설비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알려 주었다. ② '나'가 한성설비에 수리를 맡기지 않으려는 것을 알고 관리 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하라고 제안하였다.

- 1 '나'는 만년철물점 주인 할머니에게 자신의 집 화장실의 세면대가 막혔다는 문제를 이야기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도움을 구하기 위해 철물점에 들렀다.

- 2 '나'는 막힌 세면대 문제를 한성설비에서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에 기뻐하지만, 비용이 얼마인지를 듣고 깜짝 놀라며 예상보다 많은 비용이 드는 것에 불만을 느낀다.
- 3 한아가 할머니의 손주인 경빈이와 친구 사이이기 때문에 한아를 볼 때마다 사탕이나 요구르트를 주면서 지금은 같이 살지 않는 손주에 대한 애정을 표현하고 그리움을 달래고 있는 것이다.
- 4 [서술형] '나'는 출장비가 오만 원이라는 말을 듣고 비싸다고 생각하여 뒤로 넘어갈 뻔할 정도로 깜짝 놀라지만, 할머니는 일하는 사람의 가치에 합당한 전혀 아깝지 않은 돈이라고 생각한다.
- 5 [서술형] 철물점 할머니는 '나'가 세면대가 막힌 문제를 말하고 도움을 구하자, 막힌 세면대를 뚫어 주는 가게인 한성설비를 알려 준다. 하지만 수리비가 비싸서 '나'가 한성설비에 수리를 맡기지 않으려는 것을 알자 관리 사무소에 부탁해 보라고 제안한다.

소단원 핵심 확인하기

본문 18~19쪽

| 핵심 체크 | 1 × 2 ○ 3 ○ 4 ×

| 핵심 내용 확인 문제 05 | 1 ③ 2 ① 3 ② 4 세면대가 고장이 나 세면대 물이 내려가지 않는

- 1 '나'는 아파트 관리 사무소의 위치를 알아내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는 대신, 아파트 입구의 안내판을 확인하고 그 안내판의 지시대로 이동하여 혼자 힘으로 위치를 찾아냈다.
- 2 '나'는 말에 관한 속담을 언급하면서 자신은 빗을 없애 달라는 게 아니라 '그저 막힌 세면대를 좀 봐 달라는 거니까' 그 정도는 관리 사무소에서 도와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 3 ㄱ, ㄴ, ㄹ은 모두 말의 중요성을 나타내는 속담이다.

오답 해설

ㄷ은 '말은 비록 발이 없지만 천 리 밖까지도 순식간에 퍼진다는 뜻으로, 말을 삼가야 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고, ㄹ은 '아무도 안 듣는 데서라도 말조심해야 한다는 말.'로, 둘 다 말을 삼가고 조심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속담이다.

- 4 [서술형] '나'는 세면대의 물이 내려가지 않는 문제에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리 사무소를 찾았다.

지학사는 좋은 책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완벽한 교재를 위한 노력

- 도서 오류 신고는 「홈페이지 > 참고서 > 해당 참고서 페이지 > 오류 신고」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 발간 이후에 발견되는 오류는 「홈페이지 > 참고서 > 학습 자료실 > 정오표」에서 알려드립니다.

고객 만족 서비스

- 홈페이지에 문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이 등록되면 수신 체크가 되어 있는 경우 문자 메시지가 발송됩니다.

# 평가문제집

중학교 국어 1-2

교과서 원저자 © 서혁 외 9인

지은이 오경란, 박주영, 송정윤, 박종혁

개발 총괄 오세중 | 개발 책임 박정희 | 편집 정다운, 김다운

마케팅 김남우, 이혁주, 이상무, 유은영, 김규리, 김윤희

디자인 책임 김의수 | 표지 디자인 이창훈, 한강산 | 본문 디자인 이창훈, 김소민

조제판 보문미디어 | 인쇄 제본 벽호

발행인 권준구 | 발행처 (주)지학사 (등록번호 : 1957.3.18 제 13-11호)

04056 서울시 마포구 신촌로6길 5

발행일 2025년 5월 30일 [초판 1쇄]

구입 문의 TEL 02-330-5300 | FAX 02-325-8010

구입 후에는 철회되지 않으며, 잘못된 제품은 구입처에서 교환해 드립니다.

내용 문의 [www.jihak.co.kr](http://www.jihak.co.kr) 전화번호는 홈페이지 <고객센터 > 담당자 안내

이 책에 대한 저작권은 (주)지학사에 있습니다.

(주)지학사의 서면 동의 없이는 이 책의 체재와 내용 중 일부나 전부를 모방

또는 복사, 전제할 수 없습니다.

정가 19,000원



ISBN 978-89-05-05817-3